

# 남간정사의 변천과정과 보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itions and Preservation of Namganjeongsa

도 용 호\*

Do Yong Ho

###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d construction aims, transitions, and preservation strategies through literatures, old documents, old maps, drawings, and photos and attained results as followings.

‘Namganjeongsa’ was built and located, centering on the thoughts of ‘Song Si Yeol’ who adored ‘zhūzixué’. ‘Song Si Yeol’ constructed ‘Namganjeongsa’ on a valley which was situated at a beautiful surrounding with a stream. No writing mentioned that he constructed ‘Namganjeongsa’, for there was a pond. It seems that the pond was constructed, going through many transitions, after its construction.

Neighboring circumstances were damaged when ‘Gigukjeong was moved in, ‘Namgansa’ was constructed, and ‘Uamsajeok Park’ was formed. So,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together with buildings and environment of location, are meaningful.

키 워 드 : 남간정사, 보존, 문화재, 입지환경

Keywords : Namganjeongsa, Preservation, Cultural Assets, Environment of Location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시대의 생활양식과 의식세계를 지배한 공간구성인 자가 내재된 건축문화는 그 당시의 모든 학문적, 사상적, 사회적 요소 등이 건축이라는 형태를 빌어 구체화된 것으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학과 주자학 등은 도덕적 가치관으로서 단순히 한 시대의 사회제도나 윤리규범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조선조 선비문화의 형성과 정사의 건립에도 영향을 끼친 건축사상 이었다.

남간정사(南澗精舍)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암이 만년(晩年)에 거처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남간정사는 우암 사후(死後)에 종晦사(宗晦祠) 건립, 기국정(杞菊亭) 이건, 남간사(南澗祠) 건립과 우암사적공원 조성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건립당시의 원형을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와같이 남간정사의 입지적 장소성이 변형됨으로서 건축적 전통성이 상실되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남간정사의 조영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의 모습이 남간정사의 원형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 남간정사에 관한 연구도 현재와 같이 남간정사와 연못을 중심으로 조영되었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송시열의 사상이 내재된 남간정사에 대하여 논(論)하는 데는 우암의 학문성향과 자연관, 시대상황 등을 바탕으로 우암이 추구한 조영의도(造營意圖)는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조영원리(造營原理)가 어떠한 의미로 남간정사의 입지선정 및 공간구성에 반영되었고, 건축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밝히고, 건립당시의 원형과 어떠한 변천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암의 조영관(造營觀)과 일치하는 남간정사의 보존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송시열의 학문성향과 자연관을 중심으로 남간정사의 입지환경과 조영의도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남간정사가 우암 사후(死後)에 어떠한 요인(要因)들에 의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구명(究明)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화재가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어야 할지 그 활용방향을 찾아보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 1.2 연구방법

선비들이 거처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정사(精舍)는 유학사상 등을 바탕으로 조영된 전통건축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당시 정계, 학계의 중심에 있던 송시열이 만년(晩年)에 거처하기 위해 건립한 남간정사의 조영의도와 조영목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송시열의 학문적 사유체계와 남간정사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간정사의 조영당시 원형을 추정해보기 위해

\* 이사,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문도(門徒) 및 후손들의 고문서와 중수기(重修記) 등을 고찰하고, 송시열의 자연관과 학문적 성향 등이 남간정사의 조영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남간정사에 대한 현황 및 실측조사 자료와 사진자료, 현지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남간정사의 조영목적, 입지환경, 공간구성, 주변경관 등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송시열의 학문적 사유체계가 남간정사의 공간구성에 어떠한 의미로 반영되었고, 사후(死後)에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남간정사의 조영의도에 적합한 보존방향 등에 대하여 종합하였다.

## 2. 송시열의 사상적 사유체계(思惟體系)

### 2.1 송시열의 연보(年譜)와 학문성향

송시열은 1607년(선조 40)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 구룡촌 외가에서 출생하여 26세까지 살았으며, 이후 회덕에서 주로 살았다. 송시열은 1633년(인조 11년) 27세 때 참봉을 시작으로 별제, 지평, 진선, 장령, 집의, 이조참의, 찬선, 예조참판, 이조판서(52세), 우찬성(54세), 병조판서, 우의정(62세), 좌의정(66세) 등의 벼슬을 지냈다. 송시열은 태어나서 83세에 사망하기까지 4분의 임금이로부터 56년간 167회 부름을 받았으나 이에 응한 것이 37회였다.<sup>1)</sup> 그리고 3번의 정승 직에 있었던 것은 49일에 불과했음에도 조선 최대 격변기였던 17세기 이후 학계, 정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학자이며, 정치가였다.

표 1. 송시열의 연보와 건축공간

연대	내용
1607	음력11월12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구룡촌 출생
1633	인조 11년 생원시(生員試) 장원급제, 회덕에서 거처
1637	낙향(落鄕)하여 강학(講學)과 학문연구에 전념.
1654	소제에 고택을 건립하여 1661년, 55세까지 생활.
1654	효종 5년 소제에 기국정(杞菊亭) 건립
1662	현종 3년 논산에 팔괘정(八卦亭) 건립
1668	현종 9년 암서재(巖棲齋) 건립, 1970년 보수.
1683	숙종 9년 남간정사(南澗精舍) 건립
1689	숙종 15년 음력 7월24일, 제주 귀양 후 사약 받음
1697	숙종 23년 종회사(宗晦祠)를 건립.
1703	만동묘(萬東廟) 건립(1865년 훼손)
1796	정조 20년 남간정사 중건
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종회사 훼손.
1927	소제동 기국정(杞菊亭)을 남간정사에 이건(移建).
1936	송시열, 송상민, 권상하의 위패를 모신 남간사 건립
1969	남간사(南澗祠) 대대적인 보수
1976	남간정사 수리
1998	우암사적공원 조성

1) 주간한국, 종가기행54, 恩津 宋氏 尤菴 宋時烈, 2007.07.24.

송시열은 아버지 송갑조로부터 격몽요결(擊蒙要訣)·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웠다. 이때 부친은 우암에게 “주자(朱子)는 후세의 공자(孔子)이고, 울곡(栗谷)은 후세의 주자이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울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주자(朱子), 이이(李珣), 조광조(趙光祖), 김시습(金時習) 등의 절의(節義)를 교훈삼아 본받도록 가르쳤다. 따라서 송시열은 주자(朱子)의 예론(禮論)에 깊이 공감하였는데, 이후 그는 주자를 평생 사표(師表)로 받들고, 흠모하는 신념으로 생활하였다.

송시열의 철학사상은 조광조의 실치주의(實治主義), 이이의 변통론(變通論), 김장생(金長生)의 예학(禮學) 등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사상적 경향과 학문적 성과는 이후 조선사회의 정치, 사회, 사상을 규제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문체계가 되었다.

특히, 혈연(血緣)보다도 학통(學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 사회의 풍토는 성리학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송시열의 학통은 서인(西人) 학자로서는 최고의 계통(系統)이었다.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계보(系譜)는 그대로 정치적 계보가 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학통은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인의 종주(宗主)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이고, 서인의 종주(宗主)는 울곡(栗谷) 이이(李珣)이다. 울곡의 학문은 김장생에 계승되어 예학(禮學)의 탐구로 발전했으며, 송시열에 이르러 집대성될 수 있었다. 이 예학이 훗날 두 차례에 걸친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사이의 예송(禮訟) 논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sup>2)</sup>

### 2.2 송시열의 자연관

송시열은 학문을 시작한 이래 평생 주자(朱子)를 흠모하고 따랐으며, 심지어 우암(尤庵)이라는 호(號)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도 있지만, 주자가 태어난 북건 남검주(南劍州) 우계현(尤溪縣)에서 따온 것이다.<sup>3)</sup>

남간정사의 명칭도 주자의 시(詩) 운곡남간(雲谷南澗)에 따라 “주자를 사모(思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주자(朱子)가 무이산(武夷山)에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경영했다면, 우암은 화양동에 화양구곡(華陽九曲)을 경영했으며, 산수(山水)가 수려(秀麗)한 곳에 수신(修身)과 강학(講學)의 장소를 마련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은 우암이 따르고자 했던 학자로서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특히 우암의 연보(年譜)에는 중년기에 이르러 새로운 장소에 거처(居處)를 정하거나 이사한 기록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는 집터를 정하는데 있어 ‘물’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2)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2000, pp.33-34.

3) 조남호, 주희(朱熹), 중국철학의 중심, 태학사, 2004, pp. 29-30.

4) 홍형순, 남간정사 원림의 특징과 조영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1, 2005.3. 별쇄본, pp.5-6.



사진 1. 화양구곡의 암서재



그림 1. 해동지도의 남간정

송자대전에 진잠 성진리로 이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형이 넓고, 한적한 것을 사랑하여 못을 파고, 서재(書齋)를 마련, 제생(濟生)과 학문을 강론(講論)하다가 두어해 뒤 나왔다.”<sup>5)</sup>는 기록과 “소제(蘇堤)에다 복축(卜築, 살 곳으로 정하는 것)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6)</sup>

이와같이 남간정사(시 유형문화재 4호, 지정일 1989. 3. 18) 화양구곡(華陽九曲)의 암서재(巖棲齋)<sup>7)</sup> 등의 사례와 우암은 평소 이름난 명승지를 유람하는 것을 즐겼다.<sup>8)</sup>는 기록과 같이 송시열은 입

각(入閣)과 낙향(落鄉)을 거듭하면서 장수(長壽)와 유식(遊息)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곡’이나 ‘물’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입지선정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선비들의 장수와 유식 공간

선비들에 의해 지어진 정자는 단순히 시(詩)를 읊거나 술을 마시며,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선비들의 높은 이상과 투철한 학문정신을 실현하는 곳이었다.<sup>9)</sup> 따라서 선비들에 의해 건립된 정자(亭子), 정사(精舍), 별당(別堂) 형식의 건축에는 선비들의 사상과 인생관 등이 내재된 공간구성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정사란 고명한 유사(儒士)의 강학장소로 학문을 연구하고, 심신을 수양하던 곳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흔히 사용한 명칭은 별업(別業)<sup>10)</sup>, 별서(別墅), 정사(亭舍), 암(庵) 등이었다. 영조(1694~1776)때 제작된 해동지도(그림 1)에도 남간정사를 2칸 규모의 ‘남간정’으로 그려놓고 “송문정공시열 별업 남간정”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러한 선비들의 생활공간을 장수(長壽)와 유식(遊息)으로 정의한다. 장수(長壽)는 학문을 통한 수양을 의미하고, 유식(遊息)은 즐기며, 휴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시 장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뜻한다. 장수

와 유식은 궁극적으로 선비들이 고도의 인격완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자(亭子)나 정사(精舍)는 장수와 유식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건축공간인 것이다.<sup>11)</sup>

이이(李珣)는 43세 때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근처 수양산 아래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학문탐구와 제자양성에 전념하였다. 그곳의 경승(景勝)이 주자가 은거(隱居)한 무이구곡(武夷九曲)과 비슷해서 고산 석담구곡(石潭九曲)이라 했다. 그 중 5곡에 지은 은병정사에는 율곡의 학문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김장생이었다.

김장생(金長生)은 충청도 연산에 내려가 양성당을 짓고 예학연구에 몰두하였고, 그의 학문은 송시열로 이어졌다.

송시열은 충청도 회덕 일대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 중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무른 곳은 화양동이었다. 화양동은 속리산 서쪽 기슭 낙연산 아래에 있는데 우암은 수석(水石)이 매우 수려(秀麗)함에 끌리어 이곳에 초당(草堂)과 암서재(사진 1)를 짓고, 60세 되던 1666년 8월에 거처를 옮겨 초당에서 살면서 3칸 규모의 암서재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sup>12)</sup>고 한다. ‘화양동(華陽洞)’은 우암에게 무이구곡(武夷九曲)이었고, 고산구곡(高山九曲)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비들은 대부분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鄉里)에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할 정사, 정자, 서당, 별당 등을 건립하였다. 건축 입지로는 주자가 은거(隱居)했던 무이구곡과 같이 낙향하여 은둔(隱遁)하며, 거처하기에 적합한 계곡의 골짜기 등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곳을 선호(選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들어내고 내세우기를 꺼려했던 소박한 선비정신과 학문연구와 심신(心身)을 수양(修養)하기위한 장수(長壽)와 유식(遊息)의 장소성과 자연관, 풍수지리사상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송시열도 장수와 유식의 장소로 자연과 동화(同和)하기에 적합한 화양동과 비래동에 암서재와 남간정사를 짓고 거처했던 것은 우암의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관에서 비롯된 조영관(造營觀)으로 사료된다.

## 3. 송시열과 남간정사의 조영의도

### 3.1 송시열의 강학장소와 남간정사의 규모

남간정사가 위치한 비래동 지역에는 남간정사가 조영(造營)되기 전부터 이미 흥농서당이 있었는데, 우암은 회덕 비래동의 산수(山水)를 아꼈으며, 여기에서 학문과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기록과 그림 2를 보면 당시 비래동 지역은 산수가 수려한 지역으로 흥농서당(興農書堂) 혹은 흥농서재(興農書齋), 능인암(能仁庵), 남간정사, 비래암(飛來庵) 등의 강학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국역 송자대전 XII : 22. 21년 무자 선생 42세.

6) 국역 송자대전 XII : 48. 26년 계사 선생 47세.

7) 암서재는 1668년(현종 9년)에 지은 건물로 우암이 정치를 그만 두고 은거할 때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8) 홍형순, 전계서, pp.5-7.

9)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1, p.123.

10) 별업이란 살림집 밖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지어 놓고, 때때로 묵으면서 쉬는 집을 지칭하였다.

11) 김동욱, 전계서 p.126.

12) 남간사유회, 남간사지, 1998.12. p.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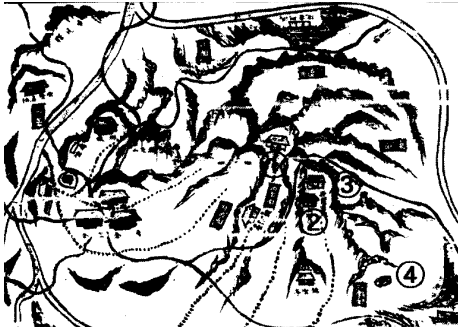


그림 2. 여지도서의 회덕현 지도<sup>13)</sup>

남간정사의 조영과정에 대해 우암 연보(年譜)에 의하면, “흥농(興農)에 있는 서재로 옮겨 우거(寓居)하였다. 흥농은 우암이

초년에 강도(講道)하던 곳인데 학자들이 서당을 지어 능인암이라 하였다. 또 우암이 수석(水石) 사이에 작은 서재(書齋)를 지었는데, 이때 남간정사란 현판을 걸고, 주자의 남간시(南間詩) 한 구절을 써서 문 위에 걸었다.”<sup>14)</sup> 하였다듯이 남간정사는 1683년 창건 당시 작은 서재였다는 기록과 우암 만년(晩年)의 시대상황은 남인(南人)과의 대립으로 유배를 갔다가 유배(流配)에서 풀려나 화양동에 은거(隱居)하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사로서는 큰 규모인 4칸 규모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창근에 의하면 “강학기능은 없고, 학문연마와 휴식기능만 있는 정사는 정면 3칸 구조인데, 주거와 강학기능이 있는 곳은 정면 4칸 구조로 되어있다.”<sup>15)</sup> 하였다듯이 정사의 규모와 관계있는 정면 칸수는 지역, 사상, 학맥 등의 요인보다는 사용 용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남간정사는 건립당시 작은 서재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정면 4칸 규모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생 주자를 흠모하고, 본받고자 했던 우암이 주자가 거처했던 무이산의 무이정사(인지당, 3칸 규모)보다 규모가 큰 4칸으로 건립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송시열의 5대손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남간정사중수상량문 서두에 “바위와 샘물은 맑고도 그윽함은 긴 세월 지나도록 의구하고, 남간정사 크고 넓게 불탄 터에 거듭 다시 새롭도다.”<sup>16)</sup>라고 하였고, 우암의 8대손 송달수의 남간정사중수기에 “갑인년 이전에는 남간정사의 존폐(存廢)를 알 수 없으나 갑인년경에 남간정사를 4칸으로 세웠다가 63년 뒤에 중수하였는데 이때 돈이 부족하여 종회사의 강당을 보수할 비용으로 보충하였다.”<sup>17)</sup>는 기록으로 보아 정사가 소실(燒失)되었다가 1796년(정조 20년) 중건(重建)되는 과정에서 크고, 넓게 4칸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이후 여러 번의 중수(重修)와 1976년 수리(修理)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2 송시열과 남간정사의 입지환경

주자(朱子)는 관직에 나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했지만, 만년(晩年)에는 무이산(武夷山)에 들어가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그 곳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자연 속에 묻혀 시(詩)를 짓고 살았다. 이러한 주자의 삶은 선비들에게 하나의 이상(理想)이 되었다. 많은 선비들은 고향 주변 경승지(景勝地)를 찾아 그 곳에 무이정사와 유사한 정사(精舍)나 정자를 짓고, 그 곳에 은거(隱居)하면서 시(詩)를 짓고, 학문탐구를 낙(樂)으로 삼았다.

특히 주자의 성리학을 추구하며, 주자의 행적(行蹟)을 행동거지의 지표로 생각하였던 우암은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입각(入閣), 낙향(落鄉), 유배(流配), 귀양(歸養)을 거듭하면서 은둔(隱遁)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강론(講論)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암서재와 남간정사를 건립하였다.

남간정사가 위치한 비래동의 지형은 ‘남간정사주변 사적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하면 서남향을 제외하고,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盆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발 200m미만의 야산으로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남간정사는 해발 표고 96m에 위치하며, 해발 100~135m의 계곡을 이루고<sup>18)</sup> 있듯이 남간정사도 건립당시에는 옥류각(玉溜閣)처럼 비래동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시냇물 반석(磐石)위에 인위적 구조물인 작은 규모의 정사를 지었을 것이다.

‘남간(南澗)’에서 ‘간(澗)’의 뜻은 ‘계곡의 시내 간’자로서 계곡을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이듯이 소쇄원이나 옥류각처럼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있기에 그 곳에 건물을 지은 것인데 동적(動的)인 골짜기를 없애고, 그곳에 정적(靜的)인 연못을 조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송시열의 사상과 ‘물’의 연관성을 우암 어록(語錄)에서 찾아보면 “한밤중에 만뢰(萬籟)가 고요할 때 누워서 창밖의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정(靜) 가운데 동(動)이 들어 있는 뜻을 알 수 있다.”<sup>19)</sup>고 하였듯이 ‘물’은 단순한 시각적(視覺的) 차원을 넘어 청각적(聽覺的) 활용은 물론 그에 내재된 의미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암의 서간(書簡)에는 자신이 남간정사를 조영(造營)하는 심정과 과정을 “곡운(谷雲)이 팔분채로 써준 당액을 새로 벽에다 걸어 두고, 한가로이 맑은 산골의 물소리를 들으며(후략)”<sup>20)</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간정사의 입지를 선정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남간(南澗)’이라는 당호(堂號)를 정하는데 있어 산골짜기의 맑은 물소리가 중요한 공간구성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암의 제자인 권상하(1641~1721)의 문집인 ‘한수재집(寒水齋集)’에 남간정사를 “작은 집 그윽한 샘가에 임했고, 난간 창 푸른 하늘 비쳐드누나. 인사는 지난날과 달라졌는데 숲 골짜기는 그대로 맑고, 고와라.”<sup>21)</sup>고 하였다.

13) 홍형순, 전게서, p.10, 재인용. ①비래암 ②남간정사 ③흥농서원 ④기국정(소제)

14) 국역, 송자대전Ⅷ, p.224, 59년10월 13일(갑자)병인 선생80세.

15) 남창근, 조선중기 정사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권1호, 2000.4, p.332.

16) 남간사유회, 남간사지, 1998.12. p.92.

17) 남간사유회, 상게서, p.97.

18) 대전시, 남간정사주변 사적공원조성기본계획, 1991.12. p.27.

19) 송자대전, 어록, 남간사유회, 남간사지, 1998, p.1044. 재인용

20) 국역 송자대전Ⅴ: 75.

송능상(宋能相, 1710~1758)은 ‘운평집(雲坪集)’에 남간정사의 모습을 “화양에서 돌아와 다시 시냇가에 정사를 세우고, 남간이라 편액(扁額)하며~(후략)”라고 하였다.<sup>22)</sup>

우암의 8대손 송달수(宋達洙, 1808~1857)는 그의 문집 ‘수종재집(守宗齋集)’에 1850년대 남간정사의 주변경관을 “동북쪽으로 숲과 산이 있고, 서남쪽으로 들이 있어서 푸르고 길게 정경이 사면을 에워싸고 있어서 밖으로부터 바라보면 얇은 골짜기가 되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의 구학(丘壑)을 이루어 너럭바위가 있다. 조그만 시내가 기울어져 그 면을 덮고 흐르니 청량함은 마실만하고, 물소리는 들을만하여 큰 가뭄에도 역시 마르지 않아 물줄기가 끊기지 않고, 비가 오면 격렬한 여울이 불만하니~(후략)”<sup>23)</sup>라고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남간정사와 관련된 고문서(古文書)에는 남간정사의 입지환경에 대해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시냇물, 졸졸 흐르는 물소리, 맑은 산골의 물소리, 숲 골짜기, 시냇가, 조그만 시내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남간정사 앞에 연못을 두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 언제 현재와 같은 규모와 원림(園林)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 3.3 송시열의 자연관과 남간정사의 공간구성

남간정사<sup>24)</sup>의 공간구성은 외삼문을 들어서면 연못 우측에 기국정이 연못 중앙을 비껴 입구 쪽을 향해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에 남간정사가 위치해있고, 남간정사 동쪽 방향으로 내삼문을 들어서 남간정사를 우회(迂回)하여 후면에 진입하면 언덕 계단 위에 남간정사와 같은 4칸 규모의 남간사(南澗祠)가 배치되어있다.

수석(水石)이 청려(淸麗)한 자연에 맞게 간수(澗水)가 대청마루 아래로 흐르도록 건립한 남간정사 앞 연못으로 흘러드는 물길은 대청마루 밑을 흐르는 샘물 외에 고봉산에서 흘러내린 계류(溪流)가 낙수(落水)를 만든 다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정사 앞 연못으로 합류한다.

남간정사는 정면 4칸 규모인데 좌측과 우측의 온돌방 앞은 낮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대청마루 부분은 2칸은 연못 쪽으로 개방하여 대청마루와 연못과 자연이 하나의 공간처럼 유기적(有機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남간정사에 앉아 대청마루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와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연못을 통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청각과 시각을 고려한 특이한 조영기법이다.

남간정사 앞마당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정원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못에 섬을 만들어 정적(靜的)인 가운데 변화를 주고, 건물 외에 연못 주변은 원래 있던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원림(園林)을 구성하여 주변 환경과 건축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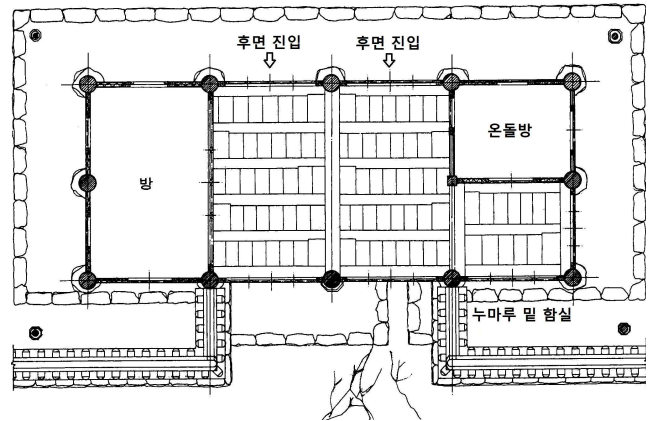


그림 3. 남간정사의 평면도<sup>25)</sup>



사진 2. 남간정사 후면 4분합문

사진 3. 남간정사의 전경

남간정사의 공간구성은 건물 후면 샘에서 솟아나온 샘물이 건물 대청 밑을 흘러서 연못을 만들다 보니 정사(精舍) 앞에 마당은 없고, 연못이 있어 정사의 출입을 건물 앞이 아닌 뒤쪽에서 해야 한다. 즉, 남간정사에 진입하려면 우측에 기국정과 연못사이를 지나 작은 다리를 건너 삼문을 들어가서 정사 후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간정사의 진입이 건물 정면이나 측면이 아닌 후면 진입방식은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왜 건물과 샘물 사이의 습한 곳에서 진입하도록 하였는지 의문이다. 정사 후면의 습(濕)한 기단에 디딤돌이나 텃마루도 없이 대청에 설치된 4분합문(사진 2)을 통해 대청으로 직접 출입하도록 했다는 것과 엄숙한 제향공간(祭享空間) 쪽에서 유생(儒生)들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전통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우암은 사후(死後) 정사에 초빈(草殯)하였다가 장례(葬禮)를 모셨는데 이와 같은 진·출입방식에서 장례동선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송시열은 사후에 중회사라는 사당이 1697년 지어졌고, 이후 송자(宋子)라 칭송되었으며, 1756년(영조 32년) 문묘(文廟)에 성현(聖賢)으로 배향(配享)되는 등 더욱 추앙받게 되었다. 따라서 서인, 노론(老論)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21) 권상하, 寒水齋集, p.115.

22) 송능상, 종회사 이건기, 남간사지, 1998, p.1088.

23) 송달수, 남간정사 증수기, 남간사지, 1998, pp.1090-1091.

24) 남간정사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가운데 4칸은 대청마루이고, 서측 2칸은 온돌방, 동측 뒤쪽 1칸은 온돌방이며, 앞쪽 1칸은 마루보다 높은 누를 만들어 아래에 함실을 설치하였다. 전면은 대청과 누마루 3칸에 띠살문 4분합문을 달았고, 온돌방에는 쌍청문을 설치하여 소박한 느낌을 준다.

25) 대전시, 남간정사주변사적공원조성기본계획, 1991, p.103. 참조.



우암이 만년(晩年)에 거처했던 남간정사는 창건이후 1796년(정조 20년)에 중건(重建)과 여러 번의 중수(重修) 과정에서 송시열의 선양(宣揚)을 기리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건립된 것으로 사료된다.

#### 4. 남간정사 주변경관의 공간변화

##### 4.1 남간정사의 공간구성과 환경변화

남간정사가 건립당시와 다르게 현재처럼 변화된 것은 시대적인 영향 및 송시열의 삶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송시열은 향리(鄕里)에 은거하며, 학문연구와 강론을 하면서 조선조 중기의 대변혁기에 정계, 학계의 중심에 있었다. 그럼에도 검소하고, 절제된 성품으로 아름다운 자연에 작은 별업(別業)을 짓고, 거처한 듯하다.

그러나 사후(死後)에 송시열의 학통(學統)과 정치적 계보(系譜)를 이어받은 서인, 노론들이 집권하면서 남간정사 주변에 흥농영당, 종회사를 짓고, 서원화하였으며, 정조 때에는 남간정사를 증건하였으나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정사를 제외한 건물들이 훼손되었다. 1927년 소제에 있던 기국정이 남간정사로 이관하였고, 1936년 남간사가 건립되면서 남간정사의 공간구성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건립당시 비래동 산골짜기였던 입지환경은 도시의 근대화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었고, 기국정의 이관과 남간사의 건립 등으로 남간정사의 전통적인 건축의미는 상실되었으며, 우암사적공원 조성사업으로 남간정사의 조영의도(造營意圖)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간정사의 공간구성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기국정의 이관(移建)과 남간사의 건립일 것이다.

기국정(杞菊亭)은 1654년(효종 4년)에 송시열이 현재의 대전 소재동에 낙향(落鄕)하여 소재방죽 옆에 지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별당이다. 송시열은 연못에 연(蓮)을 심고, 정자(亭子) 주변에는 국화(菊花)와 구기자(枸杞子)를 심었다고 한다.<sup>26)</sup> 이곳을 찾은 유학자들이 국화(菊花)와 구기자(枸杞子)가 무성함을 보고, ‘기(杞)’자와 ‘국(菊)’자를 모아 정자 이름을 기국정<sup>27)</sup>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 도시계획으로 소재방죽은 매몰(埋沒)되고, 건물도 허물어져 남간정사로 이관하였다.

남간정사는 송시열의 서재로 건립된 것이지만, 후대(後代)에 송시열을 배향(配享)하기 위하여 종회사(宗晦祠)<sup>28)</sup>

를 세우면서 서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 때 종회사가 훼손(毀撤)된 이후 남간사(南澗祠)<sup>29)</sup>가 건립되면서 강학기능은 상실되고, 제향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1998년 우암사적공원에 남간사를 건립하여 그 곳에서 제향의식을 거행하다보니 현재는 남간정사 뒤편 언덕위에 건물만 존치(存置)되고 있다.



사진 4. 기국정의 전경



사진 5. 남간사의 전경

##### 4.2 남간정사의 주변경관과 건축적 변천과정

남간정사의 공간구성을 보면 그림 3과 같이 기국정의 이관과 담장 설치 및 남간사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협소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3.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암의 8대손 송달수(宋達洙, 1808~1857)의 문집에 1850년대 남간정사의 주변경관을 상세하게 묘사했지만, 연못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못이 조성되었다면 그 이후일 것이다. 즉, 송시열은 남간정사를 짓고, 연못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화양계곡에 암서재(巖棲齋)를 짓고, 거처(居處)했던 것처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비래동 계곡을 찾아 그 곳에 정사(精舍)를 짓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주자(朱子)의 학문과 행적(行蹟) 등을 동경(憧憬)하며, 닦고자 했던 송시열의 자연관과 건축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송시열 사후(死後)에 위치는 알 수 없지만 1697년 사당인 종회사(宗晦祠)가 남간정사 인근에 건립되고, 제향기능이 부가되어 서원화되면서 주변 환경과 진·출입동선 등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96년에는 증건되고, 여러 번의 중수과정을 거치면서 공간구성상의 변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7년 기국정을 옮겨오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 담장을 설치한 듯하고, 이로 인해 폐쇄적인 공간변화와 함께 출입방식 및 연못의 형태, 그리고 기국정이 남간정사 전면 좌측에 위치함으로써 남간정사에서 연못을 통해 전개되는 경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듯하다. 1936년에는 고종(高宗)때 훼손(毀撤)된 종회사의 기능을 위해 남간사가 건립되면서 공간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도시의 확장과 도시계획으로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무분별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1998년 우암사적공원이 조성되면서 출입구부분이 복개(覆蓋)되고, 콘크리트 구조의 전각들이 건립되는 등 전체적인 주변경관의 변화가 생긴 듯하다.

29) 남간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각지붕 건물이며, 1969년 11월에 전체적으로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6) 연(蓮)은 군자(君子)를 의미하고, 국화(菊花)는 은일(隱逸)을 의미하며, 구기자(枸杞子)는 친족의 단란함을 의미한다.

27) 기국정은 초가지붕이었으나 송시열의 장손인 송은석(宋殷錫)이 기와지붕으로 수리하였다.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기단 위에 방형(方形) 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 팔각지붕건물이다.

28) 송시열 사후(1689년) 1697년(숙종 23년)에 우암의 송고한 도학(道學)과 탁월한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추모하기 위하여 영당(影堂)을 창건하고, 우암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권상하와 송상민(1626-1679)을 모신 사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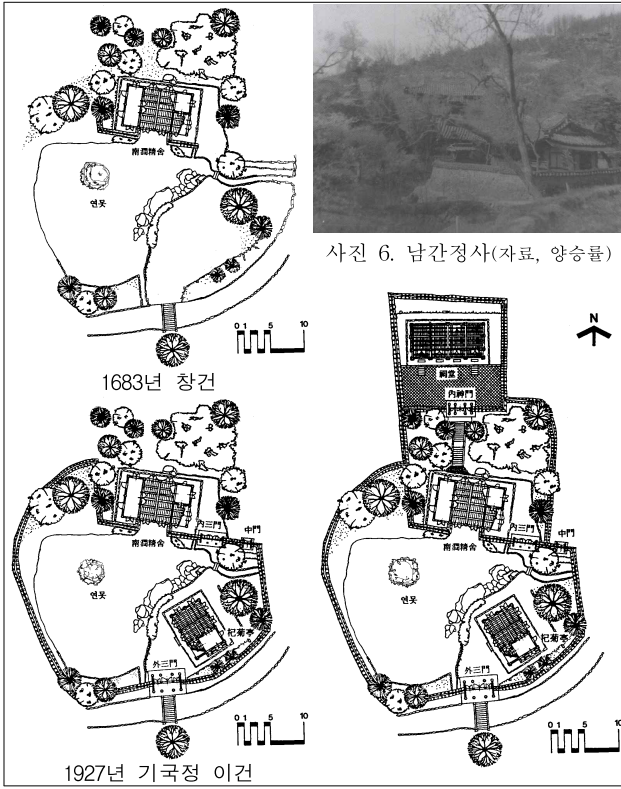


그림 4. 남간정사의 변천과정 예상도(실측 이재현, 도용호 198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남간정사는 건립당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국정이 남간정사 영역으로 이진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6<sup>30)</sup>에는 외삼문과 연못주변담장이 없고, 기국정에 담장을 쌓았으며, 출입방식이 현재와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국정 이진당시 남간정사 주변에는 이진할 만한 장소가 있었을 텐데도 협소한 남간정사 앞 연못가 우측에 연못의 중심이 아닌 연못 앞 입구 쪽을 향하여 이진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기국정의 보존·관리적인 차원이었거나 소재방죽 옆에 조성했던 기국정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남간정사 연못가에 이진(移建)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간정사는 그림 4와 같이 기국정의 이진으로 연못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추측되며, 남간정사에서 내다보는 조망(眺望) 조건이 기국정 때문에 달라졌다. 남간정사 영역을 들어서면 마당의 여유공간 없이 연못이 있고, 그나마 조금 있는 마당에 기국정을 이진하여 남간정사의 대청에서 연못을 통해 자연경관을 바라볼 때 조망을 저해(沮害) 하고, 기국정의 기능마저 상실하였다.

또한 남간정사 일원의 난개발(難開發)로 이제는 건립당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남간정사의 조영의도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듯하다.

### 4.3 남간정사 주변경관의 변화

송시열(宋時烈) 사후(死後)에 주자(朱子)와 우암의 진상

30) 대전지역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대전시사, 1997, p.98

(眞像)을 봉안(奉安)하여 흥농영당(興農影堂)이라고 하였다. 그 뒤 선비들의 휴식처와 강론(講論)할 장소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뒤에다 따로 영당(影堂)을 신축하여 종회당(宗晦堂)이라 명명(命名)하고, 남간정사 이외에 경관당(敬貫堂), 격치재(格致齋), 천이재(踐履齋), 존양각(存養閣), 확충각(擴充閣) 등의 강학장소를 지었다. 그러나 대원군 때 헐리었다가 다시 지었는데 당(堂), 재(齋), 각(閣)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sup>31)</sup>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남간정사의 주변에 이러한 전각(殿閣)들을 짓고, 전국의 유림(儒林)과 제자들을 모아 학문을 강론(講論)하였다는 것인데, 하나의 건물에 실(室)마다 이러한 현판(懸板)을 붙여 명명(命名)했다는 것인지 별개의 건물로 이러한 전각(殿閣)들이 어느 곳에 건립되었다는 것인지 문헌 및 유적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곳에 송시열의 5대손인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1710~1758)의 운평집(雲坪集)의 내용을 토대로 제향을 드리는 종회사(宗晦祠)와 제자들에게 강론(講論)을 편 강당인 이직당(以直堂), 유생(儒生)들의 공부방인 심결재(審決齋), 견뢰재(堅牢齋), 명숙각(明淑閣), 인함각(忍含閣) 등 6채의 건물을 복원하여 공원화하였다.

그러나 운평집에는 6채의 건물이 있었다는 기록만 나와 있지 건물의 모양, 배치, 규모 등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주춧돌의 위치도 발견되지 않아 현재 건물을 지은 자리가 서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고증할 수 없는 상태<sup>32)</sup>였음에도 우암사적공원조성기본계획에는 당시 문화재위원, 역사학자 및 각계 권위자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우암사적공원(1991~1997 사업추진, 1998.4.17 개장)을 조성하여 남간사, 심결재, 견뢰재, 이직당, 인함각, 명숙각, 장관각, 덕포루 등을 건립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1991년 10월 1일 개최된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문화재위원인 윤병무 위원은 “경관이 훼손되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으니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박만식 위원은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조화시켜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헌상 나오는 건물의 위치가 현재 어디인지 고증할 수 있다. 이곳을 관광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문화재 보존보호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sup>33)</sup>고, 자문하였음에도 자문과 다르게 조성되었다.

그 결과가 오히려 남간정사 주변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공원화 사업으로 전통성이 훼손되다 보니 객관적인 고증(考證)과 전통건축의 조영규범 및 건축양식에 맞는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우암(尤庵)의 8대손 송달수(1808~1857)는 남간정사 중수기에서 “젊은날 노송과 다른 나무들이 정사 앞 시내 주변에 늘어선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있지 않으니 탄식할

31) 최근목, 내 고장 한밭, 대전시, 1981.12.30., p.112.

32) 연합뉴스, 대전시, 문화재 정확한 고증 없이 복원, 1998.07.31

33) 대전시, 남간정사주변 사적공원조성기본계획, 1991, pp.15-16.

뿐이다.”고 하였듯이 남간정사는 그동안 여러번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건립당시의 조영의도와는 다르게 주변경관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 특히 우암의 선양(宣揚)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다는 우암사적공원으로 인하여 우암 송시열이 거처하기 위해 만년(晩年)에 건립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간정사가 이제는 우암사적공원의 부속 건물처럼 존치(存置)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복원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것은 후학들이 구명(究明)하여 복원하도록 해야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목적에 의해 건립당시의 조영의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5. 결론

이와 같이 남간정사의 입지환경과 조영의도 등에 대해 문헌 및 고문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 중건(重建), 중수(重修)를 거듭하며, 우암 관련 건물들이 이진(移建)되고, 건립되는 과정에서 남간정사의 건립당시 조영의도와는 다르게 변형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송시열은 조선 최대의 격병기에 정계, 학계에서 중심에 있었지만, 입각(入閣)과 유배(流配), 낙향(落鄕)을 거듭하면서 평소 흠모하던 주자(朱子)의 학문과 행적을 따라 화양동에 암서재(巖棲齋)를 짓고 거처했으며, 평생 예학(禮學)을 실천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우암은 이러한 학문적 성향 및 사상과 자연관 등을 바탕으로 만년(晩年)에 회덕으로 돌아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마지막으로 건립한 건물이 남간정사이다.

둘째, 남간정사는 골짜기를 흐르는 시냇가 반석(磐石) 위에 작은 서재(書齋)를 지어 남간정사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남간정사 앞에 연못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우암(尤庵)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이 있어 그곳에 정사를 지었던 것이지, 현재와 같이 연못이 있어 남간정사를 건립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현재와 같이 남간정사와 연못을 중심으로 정적인 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암 사후(死後) 남간정사 주변에 종회사 등 많은 전각(殿閣)의 신축과 남간정사의 중건, 기국정(杞菊亭)의 이진(1927년), 남간사(南澗祠)의 건립(1936년) 등으로 골짜기의 수로(水路) 등 주변 환경이 변형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남간정사 건립(1683년) 당시에는 작은 서재였다는 기록과 건립당시의 시대상황 및 우암의 처지 그리고 주자(朱子)를 흠모했던 학문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건립 이후 소실(燒失)된 것을 중건(1796년)하면서 크고, 넓게 4칸 규모로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서인(西人)의 정신적 지주였던 우암이 만년에 거처했던 남간정사의 상징성 때

문에 현재와 같은 규모와 모습으로 조성된 듯하다.

넷째, 남간정사가 조영(造營)된 이후 현재와 같은 4칸 규모와 연못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대청마루 밑으로 샘물이 흐르도록 조영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당시 선비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이러한 의도에 맞도록 마루 밑으로 물이 흘러 연못을 형성하도록 복원하여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섯째, 우암(尤庵)의 자연관과 조영관 등 사상적 결집체인 남간정사의 건축적인 가치가 아무리 우수해도 주변경관이 훼손되면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듯이 근대화 과정에서 남간정사와 인접하여 도로망이 구축되고, 주거지가 형성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변 환경이 열악해졌으며, 담장을 둘러 경계를 표시하고, 우암사적공원이 조성되다보니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개방적이었던 건립당시 남간정사의 조영의도는 이미 훼손되었다.

이와같이 문화재의 주변경관이 훼손된 남간정사와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에 인접된 농촌 지역에 현존하는 문화재 주변 환경 역시 농촌경관 차원에서 문화재와 주변경관이 같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시민들의 전통건축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연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역사문화투어코스 외에 송시열의 남간정사, 송준길의 고택, 동춘당, 옥류각, 송용익 가옥, 송규림의 제월당, 회덕향교 등 은진 송씨들의 문화유적을 역사문화 탐방, 체험, 학습공간 등으로 관광자원화한다면, 원형을 보존하는 것 못지않게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남간사유회, 남간사지, 1998.12.
- 대전시, 남간정사주변 사적공원 조성기본계획, 1991.12.
- 대전지역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대전시사, 1997.
- 송자대전, 보경문화사, 1985.
-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2000.
- 조남호, 주희, 중국철학의 중심, 태학사, 2004.
- 최근복, 내 고장 한발, 대전시, 1981.12.30.
- 남창근, 조선중기 정사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1.08.
- 도용호,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교육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논문, 1995.12.
- 홍형순, 남간정사 원림의 특징과 조영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1, 2005.3.
- 남창근, 이재현, 조선중기 정사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권1호, 2000.04.
- 주간한국, 종가기행 54, 은진 송씨 우암 송시열, 2007.07.24.